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가창지도에 대한 인식 연구*

조 순 이**

본 연구는 강원도권의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가창지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교사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문항은 응답자 요인, 가창교육에 대한 인식 요인, 가창수업 요인,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요인, 가창관련 교사재교육 요인, 교사재교육 프로그램과 지원방법 요인의 범주로 구성하였고,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다양한 노래곡의 가창지도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창작동요곡 지도를 선호하고, 반주는 주로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음원을 듣고 따라 부르기 방식으로 지도한다고 밝혔다. 가창지도 및 평가내용으로 리듬과 음정의 정확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가창관련 프로그램은 정규교과 외에 동아리 활동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 주제어: 음악전담교사, 가창지도, 교사 가창연수, 교과전담제

차 례

I. 서 론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조사 도구
3. 자료 처리

III. 연구 결과

1.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응답자 요인
2.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가창 지도와 가창 수업 요인
3.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정규 이외 가창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요인
4.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가창 관련 교사 재교육과 지원 요인

IV. 논의 중점

V.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2014년도 춘천교육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론

1960년대 초에 이화여자대학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에서 음악·미술·체육·과학 등의 4개 교과에 한하여 교과전담제 형태로 수업을 실시하면서부터, 교과전담제가 점차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법적으로 교과전담교사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처음 등장했는데,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 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명시되었다(교육법전 1998, 26). 그러나 이 교과전담제가 시행된 지 21년째가 되던 해였던 2013년 2월 1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4377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면서 전면 폐지되었다. 이는 음악교과와 경우 교과전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교과전담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연구(양종모 외 2001; 임미경 2003; 석선혜 2005; 최민경 2005; 문경숙 2009)의 입장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제의 실시는 세계적 추세로서, 미국¹⁾(3~4학년부터 적용), 영국(3학년부터 적용), 일본(5학년부터 적용),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어 운영하고 있는데(이일용 2000, 김효정 2007, 5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대안 없이 이를 법령으로 폐지시킨 것은 분명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음악교과의 경우도 특히 강원도에선 본교와 분교를 포함한 전체 초등학교수의 25%에 해당하는 99개 초등학교에서 음악전담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²⁾ 즉 단 1명의 음악전담교사가 4개 학교 해당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상황이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환화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음악전담교사는 영어전담교사 다음으로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갖는다.’고 밝혔다(2006, 54). 이처럼 법적으로 교과전담제가 폐지된 이후, 음악전담교사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권역에서 음악전담교

1) 참고로 미국은 대다수(약 90%) 초등학교에서 음악전담교사를 채용하여 음악수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문경숙 2009, 94).

2) 정부3.0 정보공개 중 2015년 하반기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는 본교 5,978개교와 분교 254개교로 총 6,232개교이며, 강원도는 본교 351개교와 분교 43개교로 총 394개교이다(<http://cesi.kedi.re.kr/index>).

사제가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과연 실제 음악전담교사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음악전담교사 자신들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기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등이 궁금하다.

초등학교 음악수업은 크게 가창, 기악, 창작 활동 중심의 표현 영역, 감상 영역 및 생활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가창관련 활동은 음악수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현장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창을 지도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미 가창지도의 내용 및 가창의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도방법에 대해 제안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함희주 1994; 고선미 2001; 조순이 2007; 류미애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창지도 시 노래 반주에 자신이 없거나, 교실의 여건상 교사가 인터넷사이트의 음원에 의존하여 수업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는 초등 음악교육현장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 권역의 음악전담교사 자신들이 음악교수능력 중에서 가창지도능력과 가창관련 교사재교육 참여에 대해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진단하여 자료를 마련하고, 그로써 가창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권의 초등 음악전담교사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1. 누가 현장에서 초등 음악교과를 전담하고 있는가?
2. 교직경력 및 음악전담경력에 따라 가창 지도능력과 가창수업에 대한 전담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정규교과 외의 가창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4. 가창관련 교사재교육 및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강원도권의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음악전담교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구글

드라이브 설문조사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총 99부가 배포되었으며, 그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것을 제외하고 총 67부(68%)의 답변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위(%)
성별	여자	47	70
	남자	20	30
연령	20대	2	3
	30대	12	18
	40대	31	46
	50대	20	30
	60대	2	3
교직 경력	5년 이하	3	4
	5년 초과 10년 이하	6	9
	10년 초과 20년 이하	21	31
	20년 초과 30년 이하	24	36
	30년 초과	10	15
학위	학사	37	55
	음악교육 관련 석사	9	13
	음악교육 비관련 석사	21	31
음악전담교사가 된 경위	음악교과 지도를 위한 본인의 희망	25	37
	업무 진행을 위한 학교장의 임명	32	48
	기간제교사	1	1
	담임교사 요청	7	10
	학교 기존(5년 이상) 음악전담운영	1	1
	학부모의 요청	1	1
음악전담교사 경력	1년	26	39
	2년	14	21
	3년	11	16
	3년 초과 5년 이하	10	15
	5년 초과 10년 이하	6	9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설문지로서 음악교과전담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 특히 최은식 외(2012)의 연구와 양종모 외(2001)의 연구, 전문가들(교수

및 성악지도자)의 자문을 받아 문항구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영역 및 내용은 <표 2>에서와 같이 응답자 요인 외에 가창교육에 대한 인식 요인(7문항) 가창수업 요인(6문항);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요인(3문항); 가창관련 교사재교육 요인(2문항), 교사재교육 프로그램과 지원방법 요인(5문항)의 3개의 내용 범주에 따라 총 21개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몇 개의 문항들은 필요시 총 10개의 하위 문항으로 세분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번호
응답자 요인	성별, 연령, 교직경력, 학위, 음악전담교사를 맡게 된 경위, 음악전담교사 경력	없음
가창교육에 대한 인식 요인	가창교육의 목적	1
	가창교육의 필요성	2
	가창지도 교수능력	3
	가창지도 선호 장르	4
	가창지도 반주 능력	5
	가창지도 방식	6
	가창지도 중 병행 활동	7
가창수업 요인	가창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8
	가창수업에서 적용하는 교수법	9
	가창수업과 연계하는 활동 영역	10
	가창수업 중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활동 구성방법	11
	가창수업 후 평가 요소	12
	음악 수업에서 가창 관련 활동의 비중	1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요인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 관련 프로그램 시행여부	14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 관련 프로그램 유형	14-1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 관련 프로그램 담당자	14-2
	가창활동 시수확대 요구	15
	가창활동 시수확대 희망 시간	16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요인	가창 관련 연수의 필요성	17
	가창 관련 연수가 필요한 이유	17-1
	가창 관련 강의나 연수의 필요한 내용	17-2
	가창 관련 강의나 연수의 적절한 기간	17-3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번호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참여 여부	18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참여 횟수	18-1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최근 참여 시기	18-2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이수 형태	18-3
교사재교육 프로그램과 지원방법 요인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주요 내용	19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이수 장소	19-1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이수 시간	19-2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이수 후 효과	20
	가창 관련 교사재교육 수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21

3. 자료 처리

최종적으로 채택된 67명의 강원도 지역의 음악전담교사의 설문지의 자료분석은 SPSS Win ver. 14.0을 활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근무경력별 가창지도에 대한 인식과 지도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의 교차분석과 카이제곱(X²) 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특성상 카이제곱 검정의 기댓값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문항은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부 무응답 및 중복응답 항목은 카이제곱 검정이 불가능한 문항이므로 통계처리를 하지 않아서 매번 총 응답자가 67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응답자 요인

1) 교직경력

음악전담경력과 교직경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 사이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p>.05$). 따라서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무시해도 좋다고 볼 수 있다.

<표 3> 교직경력과 음악전담지도경력 차이 검정

조사 내용		음악전담교사 경력					
		1년	2년	3년	3년~5년	5년~10년	전체
교직 경력	5년 이하	3(12.0%)	0(0.0%)	0(0.0%)	0(0.0%)	0(0.0%)	3(4.7%)
	5년 ~ 10년	3(12.0%)	3(21.4%)	0(0.0%)	0(0.0%)	0(0.0%)	6(9.4%)
	10년 ~ 20년	9(36.0%)	6(42.9%)	0(0.0%)	3(30.0%)	3(50.0%)	21(32.8%)
	20년 ~ 30년	7(28.0%)	5(35.7%)	6(66.7%)	5(50.0%)	1(16.7%)	24(37.5%)
	30년 초과	3(12.0%)	0(0.0%)	3(33.3%)	2(20.0%)	2(33.3%)	10(15.6%)
	전체	25(100.0%)	14(100.0%)	9(100.0%)	10(100.0%)	6(100.0%)	64(100.0%)
	경력별 X^2	Fisher = 19.820 p = 0.103					

2) 연령

음악전담경력과 연령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음악전담교사경력과 연령과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다시 말해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음악전담경력 역시 많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비례한다.

<표 4> 연령과 음악전담지도경력 차이 검정

조사 내용		음악전담교사 경력					
		1년	2년	3년	3년~5년	5년~10년	전체
연령	20대	2(8.0%)	0(0.0%)	0(0.0%)	0(0.0%)	0(0.0%)	2(3.1%)
	30대	8(32.0%)	3(21.4%)	0(0.0%)	0(0.0%)	0(0.0%)	11(17.2%)
	40대	9(36.0%)	9(64.3%)	3(33.3%)	6(60.0%)	2(33.3%)	29(45.3%)
	50대	4(16.0%)	2(14.3%)	6(66.7%)	4(40.0%)	4(66.7%)	20(31.3%)
	60대	2(8.0%)	0(0.0%)	0(0.0%)	0(0.0%)	0(0.0%)	2(3.1%)
	전체	25(100.0%)	14(100.0%)	9(100.0%)	10(100.0%)	6(100.0%)	64(100.0%)
	경력별 X^2	Fisher = 21.748 p = 0.049					

3) 학위

음악전담지도경력 학위와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음악전담교사경력 기간과 학위 요인 사이에 차이가 미미하였다($p>.05$). 따라서 음악전담지도경력 학위에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

<표 5> 학위와 음악전담 지도경력 차이 검정

조사 내용		음악전담교사 경력					
		1년	2년	3년	3년~5년	5년~10년	전체
학위	학사	14(56.0%)	9(64.3%)	5(55.6%)	5(50.0%)	3(50.0%)	36(56.3%)
	음악교육관련석사	1(4.0%)	1(7.1%)	1(11.1%)	3(30.0%)	2(33.3%)	8(12.5%)
	음악교육비관련석사	10(40.0%)	4(28.6%)	3(33.3%)	2(20.0%)	1(16.7%)	20(31.3%)
	전체	25(100.0%)	14(100.0%)	9(100.0%)	10(100.0%)	6(100.0%)	64(100.0%)
	경력별 X^2	Fisher = 7.468 p = 0.460					

4) 음악전담교사가 된 경위

음악전담지도경력과 그 경위와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교사의 경력 기간과 음악전담 경위 요인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경력과 음악전담 경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표 6> 음악전담 경위와 경력 차이 검정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경위	본인 희망	8 (32.0%)	4 (28.6%)	3 (33.3%)	5 (50.0%)	3 (50.0%)	23 (35.9%)	0 (0.0%)	2 (33.3%)	8 (38.1%)	8 (33.3%)	5 (50.0%)	23 (35.9%)
	교장 임명	10 (40.0%)	8 (57.1%)	5 (55.6%)	5 (50.0%)	3 (50.0%)	31 (48.4%)	2 (66.7%)	3 (50.0%)	9 (42.9%)	13 (54.2%)	4 (40.0%)	31 (48.4%)
	기간제 교사	1 (4.0%)	0 (0.0%)	0 (0.0%)	0 (0.0%)	0 (0.0%)	1 (1.6%)	0 (0.0%)	0 (0.0%)	0 (0.0%)	0 (0.0%)	1 (10.0%)	1 (1.6%)
	담임교사 요청	5 (20.0%)	1 (7.1%)	1 (11.1%)	0 (0.0%)	0 (0.0%)	7 (10.9%)	1 (33.3%)	1 (16.7%)	3 (14.3%)	2 (8.3%)	0 (0.0%)	7 (10.9%)
	학교(5년 이상)음악전담운영	0 (0.0%)	1 (7.1%)	0 (0.0%)	0 (0.0%)	0 (0.0%)	1 (1.6%)	0 (0.0%)	0 (0.0%)	0 (0.0%)	1 (4.2%)	0 (0.0%)	1 (1.6%)
	학부모님 들요청	1 (4.0%)	0 (0.0%)	0 (0.0%)	0 (0.0%)	0 (0.0%)	1 (1.6%)	0 (0.0%)	0 (0.0%)	1 (4.8%)	0 (0.0%)	0 (0.0%)	1 (1.6%)
	전체	25 (100.0%)	14 (100.0%)	9 (100.0%)	10 (100.0%)	6 (100.0%)	64 (100.0%)	3 (4.7%)	6 (9.4%)	21 (32.8%)	24 (37.5%)	10 (15.6%)	64 (100.0%)
	경력별 X^2	Fisher =15.602 p = 0.945						Fisher = 19.702 p= 0.732					

2.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가창지도와 가창수업 요인

1) 가창교육의 목적

조사대상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창교육의 목적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7> 가창교육의 목적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 년	5~10 년	전체	5년 이하	5~10 년	10~20 년	20~30 년	30년 초과	전체
가창 교육의 가장 중요 한 목적	학생가창 실력배양	1	3	2	0	0	6	1	0	2	3	0	6
		4.0%	21.4%	22.2%	0.0%	0.0%	9.4%	33.3%	0.0%	9.5%	12.5%	0.0%	9.4%
	음악적 지식 습득	5	1	2	2	2	12	1	1	3	5	2	12
		20.0%	7.1%	22.2%	20.0%	33.3%	18.8%	33.3%	16.7%	14.3%	20.8%	20.0%	18.8%
	정서 함양	1	0	0	0	1	2	0	1	0	0	1	2
		4.0%	0.0%	0.0%	0.0%	16.7%	3.1%	0.0%	16.7%	0.0%	0.0%	10.0%	3.1%
	학생감정 표현능력 향상	3	3	1	0	1	8	0	1	5	2	0	8
		12.0%	21.4%	11.1%	0.0%	16.7%	12.5%	0.0%	16.7%	23.8%	8.3%	0.0%	12.5%
	음악관심 고취	8	1	0	1	2	12	0	0	4	6	2	12
		32.0%	7.1%	0.0%	10.0%	33.3%	18.8%	0.0%	0.0%	19.0%	25.0%	20.0%	18.8%
	다양한 재제곡 심미적 경험제공	5	6	4	7	0	22	1	3	6	8	4	22
		20.0%	42.9%	44.4%	70.0%	0.0%	34.4%	33.3%	50.0%	28.6%	33.3%	40.0%	34.4%
	기타 (모두 해당됨)	2	0	0	0	0	2	0	0	1	0	1	2
		8.0%	0.0%	0.0%	0.0%	0.0%	3.1%	0.0%	0.0%	4.8%	0.0%	10.0%	3.1%
전체	25	14	9	10	6	64	3	6	21	24	10	64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경력별 X^2		Fisher = 28.059 p = 0.86						Fisher = 20.235 p = 0.679					

2) 가창교육의 필요성

조사대상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창교육의 필요성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따라서 경력에 무관하게 모두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가창교육의 필요성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가창교육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	10	7	4	6	3	30	2	3	10	10	5	30
		40.0%	50.0%	44.4%	60.0%	50.0%	46.9%	66.7%	50.0%	47.6%	41.7%	50.0%	46.9%
	필요	14	6	5	4	3	32	1	2	10	14	5	32
		56.0%	42.9%	55.6%	40.0%	50.0%	50.0%	33.3%	33.3%	47.6%	58.3%	50.0%	50.0%
	상관 없다	1	1	0	0	0	2	0	1	1	0	0	2
		4.0%	7.1%	0.0%	0.0%	0.0%	3.1%	0.0%	16.7%	4.8%	0.0%	0.0%	3.1%
	전체	25	14	9	10	6	64	3	6	21	24	10	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3.552 p = 0.967						Fisher = 6.202 p = 0.681					

3) 가창지도 실기능력

조사대상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창지도 실기능력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차이가 미미했기에($p>.05$), 경력과 교사의 실기지도능력은 무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 가창지도 실기능력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가창지도 실기능력	상	3	1	1	2	3	10	1	0	6	2	1	10
		12.0%	7.1%	11.1%	20.0%	50.0%	15.6%	33.3%	0.0%	28.6%	8.3%	10.0%	15.6%
	중	16	10	8	7	2	43	0	5	13	18	7	43
		64.0%	71.4%	88.9%	70.0%	33.3%	67.2%	0.0%	83.3%	61.9%	75.0%	70.0%	67.2%
	하	6	3	0	1	1	11	2	1	2	4	2	11
		24.0%	21.4%	0.0%	10.0%	16.7%	17.2%	66.7%	16.7%	9.5%	16.7%	20.0%	17.2%
	전체	25	14	9	10	6	64	3	6	21	24	10	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8.566 p = 0.323						Fisher = 11.200 p = 0.119					

4) 가창지도 선호 장르

조사대상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창지도 선호 장르와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10> 가창 지도 선호 장르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가창 지도 선호 장르	창작 동요	16	10	5	3	3	37	2	4	13	11	7	37
		64.0%	71.4%	55.6%	30.0%	50.0%	57.8%	66.7%	66.7%	61.9%	45.8%	70.0%	57.8%
	전래 동요	2	2	2	3	0	9	0	0	1	6	2	9
		8.0%	14.3%	22.2%	30.0%	0.0%	14.1%	0.0%	0.0%	4.8%	25.0%	20.0%	14.1%
	건전 가요	1	1	1	1	0	4	0	2	1	1	0	4
		4.0%	7.1%	11.1%	10.0%	0.0%	6.3%	0.0%	33.3%	4.8%	4.2%	0.0%	6.3%
	우리 민요	2	0	0	0	1	3	0	0	0	3	0	3
		8.0%	0.0%	0.0%	0.0%	16.7%	4.7%	0.0%	0.0%	0.0%	12.5%	0.0%	4.7%
	세계 노래	1	0	0	0	0	1	1	0	0	0	0	1
		4.0%	0.0%	0.0%	0.0%	0.0%	1.6%	33.3%	0.0%	0.0%	0.0%	0.0%	1.6%
	합창 또는 중창곡	3	1	0	3	2	9	0	0	6	2	1	9
		12.0%	7.1%	0.0%	30.0%	33.3%	14.1%	0.0%	0.0%	28.6%	8.3%	10.0%	14.1%
	우쿨렐레 또는 기타 반주곡	0	0	1	0	0	1	0	0	0	1	0	1
		0.0%	0.0%	11.1%	0.0%	0.0%	1.6%	0.0%	0.0%	0.0%	4.2%	0.0%	1.6%
	전체	25	14	9	10	6	64	3	6	21	24	10	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23.579 p = 0.390						Fisher = 29.047 p = 0.120					

5) 가창지도 방식

조사대상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창지도 방식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차이가 미미했다(p>.05).

<표 11> 가창지도 방식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가창 지도 방식	악보보고읽어부르기	3	0	0	2	0	5	1	0	1	2	1	5
		12.5%	0.0%	0.0%	20.0%	0.0%	7.9%	33.3%	0.0%	4.8%	8.3%	10.0%	7.9%
	교사의 노래들	7	5	2	5	4	23	1	4	11	6	1	23
		29.2%	35.7%	22.2%	50.0%	66.7%	36.5%	33.3%	80.0%	52.4%	25.0%	10.0%	36.5%
	음원들고파라부르기	14	9	7	3	2	35	1	1	9	16	8	35
		58.3%	64.3%	77.8%	30.0%	33.3%	55.6%	33.3%	20.0%	42.9%	66.7%	80.0%	55.6%
	전체	24	14	9	10	6	63	3	5	21	24	10	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8.836 p = 0.286						Fisher = 12.956 p = 0.058					

6) 가창수업에서의 중점 요소(중복응답을 토대로)

<표 12> 가창 수업에서의 중점 요소

조사 내용		응답 수(%)
가창 수업 중점 요소	바른 자세	8(8.8)
	발성	19(21.1)
	노력하는 태도	15(16.6)
	자신감	24(26.6)
	음정과 박자의 정확도	23(25.5)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기	1(1.0)
	전체	90(100.0)

7) 교수법 적용 활동

조사대상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수법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 차이가 미미했다($p>.05$).

<표 13> 교수법 적용 활동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적용 교수 법	달크로즈	1	0	2	0	1	4	0	0	2	2	0	4
		4.3%	0.0%	22.2%	0.0%	16.7%	6.6%	0.0%	0.0%	9.5%	8.7%	0.0%	6.6%
	오르프	4	1	0	1	0	6	0	0	1	2	3	6
		17.4%	7.1%	0.0%	11.1%	0.0%	9.8%	0.0%	0.0%	4.8%	8.7%	33.3%	9.8%
	코다이	6	8	4	4	2	24	1	3	9	8	3	24
		26.1%	57.1%	44.4%	44.4%	33.3%	39.3%	33.3%	60.0%	42.9%	34.8%	33.3%	39.3%
	사용하지 않는다	12	5	3	4	3	27	2	2	9	11	3	27
		52.2%	35.7%	33.3%	44.4%	50.0%	44.3%	66.7%	40.0%	42.9%	47.8%	33.3%	44.3%
	전체	23	14	9	9	6	61	3	5	21	23	9	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10.161 $p = 0.535$						Fisher = 7.418 $p = 0.860$					

8) 가창수업에서의 평가 요소(중복응답을 토대로)

<표 14> 가창수업에서의 평가 요소

조사 내용		응답 수(%)
가창 수업 평가 요소	바른 자세	11(10.0)
	발성	14(12.8)
	음정과 박자의 정확성	45(41.2)
	노력하는 태도	22(20.1)
	자신감	17(15.5)
	전체	109(100)

9) 다른 활동 영역과의 연계 활동

조사대상 교사들이 연계하는 다른 영역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15> 다른 활동 영역과의 연계 활동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주요 연계 영역	기악	13	11	6	6	3	39	2	2	14	14	7	39
		52.0%	78.6%	66.7%	60.0%	50.0%	60.9%	66.7%	33.3%	66.7%	58.3%	70.0%	60.9%
	감상	3	0	2	0	1	6	0	1	0	3	2	6
		12.0%	0.0%	22.2%	0.0%	16.7%	9.4%	0.0%	16.7%	0.0%	12.5%	20.0%	9.4%
	창작	4	0	0	0	0	4	1	1	2	0	0	4
		16.0%	0.0%	0.0%	0.0%	0.0%	6.3%	33.3%	16.7%	9.5%	0.0%	0.0%	6.3%
	생활화	5	3	1	4	2	15	0	2	5	7	1	15
		20.0%	21.4%	11.1%	40.0%	33.3%	23.4%	0.0%	33.3%	23.8%	29.2%	10.0%	23.4%
	전체	25	14	9	10	6	64	3	6	21	24	10	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10.952 p = 0.430						Fisher = 13.954 p = 0.183					

10)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

조사대상 교사들이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활동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분석결과 차이는 미미했다($p>.05$).

<표 16>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초과	전체
개인차 고려한 활동 방법	수준별	4	3	0	2	3	12	1	2	3	5	1	12
	학습문제를 제시	17.4%	21.4%	0.0%	22.2%	50.0%	20.0%	33.3%	33.3%	15.0%	22.7%	11.1%	20.0%
	수준을 고려한	12	7	6	5	2	32	1	3	10	14	4	32
	모둠구성	52.2%	50.0%	75.0%	55.6%	33.3%	53.3%	33.3%	50.0%	50.0%	63.6%	44.4%	53.3%
	고려하지 않는다	7	4	2	2	0	15	1	1	7	3	3	15
	기타 (소인수 학습)	30.4%	28.6%	25.0%	22.2%	0.0%	25.0%	33.3%	16.7%	35.0%	13.6%	33.3%	25.0%
	전체	0	0	0	0	1	1	0	0	0	0	1	1
	전체	0.0%	0.0%	0.0%	0.0%	16.7%	1.7%	0.0%	0.0%	0.0%	0.0%	11.1%	1.7%
	전체	23	14	8	9	6	60	3	6	20	22	9	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12.608 p = 0.391						Fisher = 11.281 p = 0.587					

11) 음악교과의 가창관련 활동 비중

<표 17> 음악교과의 가창관련 활동 비중

조사 내용		응답 수(%)
가창 관련 활동 비중	10~30%	24(35.8)
	30~50%	27(40.2)
	50~70%	14(20.8)
	80%이상	1(1.0)
	무응답	1(1.0)
	전체	67(100)

3.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정규 이외 가창관련 프로그램 운영 요인

1)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관련 프로그램 시행여부

정규교과 외 가창관련 프로그램 시행여부와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8>과 같다. 분석결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18>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관련 프로그램 시행여부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정규교과 이외 가창 관련 프로그램 시행 여부	예	9	1	1	2	2	15	1	3	5	5	1	15					
		36.0%	7.1%	11.1%	20.0%	33.3%	23.4%	33.3%	50.0%	23.8%	20.8%	10.0%	23.4%					
	아니오	16	13	8	8	4	49	2	3	16	19	9	49					
		64.0%	92.9%	88.9%	80.0%	66.7%	76.6%	66.7%	50.0%	76.2%	79.2%	90.0%	76.6%					
	전체	25	14	9	10	6	64	3	6	21	24	10	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χ^2							Fisher = 5.174 p = 0.247							Fisher = 3.720 p = 0.437				

2)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관련 프로그램 유형

<표 19>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관련 프로그램 유형

조사 내용		응답 수(%)
정규교과이외 가창프로그램	동아리	14(82.3)
	창의적재량활동	3(17.6)
	전체	17(100)

3)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관련 프로그램 담당자

<표 20>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관련 프로그램 담당자

조사 내용		응답 수(%)
정규교과 이외 가창 프로그램 담당자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자	4(9.0)
	음악전담교사	15(68.1)
	음악에 관심이 있는 (비전담)교사	3(13.6)
	전체	22(100)

4) 가창활동 시수 확대요구

가창활동 시수 확대요구와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1>과 같다. 분석결과 특기할만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21> 가창활동 시수 확대요구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가창활동 시수 확대 요구	예	9	3	3	2	4	21	2	3	8	5	3	21
		37.5%	23.1%	33.3%	20.0%	66.7%	33.9%	66.7%	50.0%	38.1%	22.7%	30.0%	33.9%
	아니오	15	10	6	8	2	41	1	3	13	17	7	41
		62.5%	76.9%	66.7%	80.0%	33.3%	66.1%	33.3%	50.0%	61.9%	77.3%	70.0%	66.1%
	전체	24	13	9	10	6	62	3	6	21	22	10	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4.259 p = 0.384						Fisher = 3.768 p = 0.439					

4. 음악전담교사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가창관련 교사재교육과 지원 요인

1) 가창관련 강의나 연수를 받은 시기

가창관련 강의나 연수를 받은 시기와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2>와 같다. 분석결과 교사의 경력 기간과 교직경력 기간 모두 가창관련 강의나 연수를 받은 시기 요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즉, 경력이 많을수록 연수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음악전담교사의 경력 기간은 교직경력 기간보다 가창관련 강의나 연수를 받은 시기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표 22> 가창관련 강의나 연수를 받은 시기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가창 관련 연수 시기	최근 3년 이내(%)	5 (55.6)	0 (0.0)	0 (0.0)	2 (33.3)	0 (0.0)	7 (29.2)	2 (100.0)	2 (100.0)	2 (33.3)	1 (11.1)	0 (0.0)	7 (29.2)
	최근 3~10년 이내(%)	4 (44.4)	1 (100.0)	0 (0.0)	3 (50.0)	4 (100.0)	12 (50.0)	0 (0.0)	0 (0.0)	4 (66.7)	6 (66.7)	2 (40.0)	12 (50.0)
	10년 이전(%)	0 (0.0)	0 (0.0)	4 (100.0)	1 (16.7)	0 (0.0)	5 (20.8)	0 (0.0)	0 (0.0)	0 (0.0)	2 (22.2)	3 (60.0)	5 (20.8)
	전체(%)	9 (100.0)	1 (100.0)	4 (100.0)	6 (100.0)	4 (100.0)	24 (100.0)	2 (100.0)	2 (100.0)	6 (100.0)	9 (100.0)	5 (100.0)	24 (100.0)
	경력별 X^2	Fisher = 17.214 p = 0.002						Fisher = 13.549 p = 0.024					

2) 가창관련 연수가 필요한 이유와 연수내용

해당하는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인해 교차분석을 제외하고 통계수치만 소개한다. 다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창을 지도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가창관련 연수가 필요하고, 연수내용으로는 가창관련 교수·학습 지도법을 요구하는 응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가창관련 연수가 필요한 이유와 연수내용

조사 내용		응답 수(%)
가창 관련 연수가 필요한 이유	가창지도 능력의 향상을 위해	51(88.0)
	교사의 가창능력 향상을 위해	3(5.0)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	3(5.0)
	기타	1(2.0)
	전체	58(100.0)
가창 관련 강의나 연수 내용	교과서 제재곡 지도	14(16.0)
	가창수업시의 반주법	8(9.0)
	교사의 가창실기 지도	19(21.0)
	가창 관련 교수·학습 지도법	32(36.0)
	가창 지도시 지도할 수 있는 활동	17(19.0)
	전체	90(100.0)

3) 연수 기간

교사에게 필요한 가창관련 강의나 연수의 기간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4>와 같다. 분석결과 음악전담교사의 경력 기간과 교직 경력 기간 모두 교사에게 필요한 가창관련 강의나 연수를 받은 기간 요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24> 연수 기간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교사에 게 필요 한 가장 관련 연수 기간	1~15시간 이내	9	5	3	3	4	24	2	3	8	8	3	24
	최근 3~10년 이내	42.9%	41.7%	37.5%	37.5%	66.7%	43.6%	66.7%	50.0%	44.4%	42.1%	33.3%	43.6%
	1주일 (30시간)	10	6	5	5	2	28	1	3	8	10	6	28
	전체	47.6%	50.0%	62.5%	62.5%	33.3%	50.9%	33.3%	50.0%	44.4%	52.6%	66.7%	50.9%
	2주일 (60시간)	1	1	0	0	0	2	0	0	1	1	0	2
	경력별 X^2	4.8%						0.0%					

4) 이수한 연수의 형태

이수했던 가장관련 강의나 연수의 형태와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5>과 같다. 분석결과 음악전담경력 기간과 교직경력 기간 모두 이수한 연수의 형태 요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25> 이수한 연수의 형태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 초과	전체
이수 연수 형태	자율 연수	2	0	1	1	1	5	1	1	1	2	0	5
		22.2%	0.0%	25.0%	16.7%	25.0%	20.8%	50.0%	50.0%	16.7%	22.2%	0.0%	20.8%
	직무 연수	7	1	2	5	3	18	1	1	5	6	5	18
		77.8%	100.0%	50.0%	83.3%	75.0%	75.0%	50.0%	50.0%	83.3%	66.7%	100.0%	75.0%
	대학원 수업	0	0	1	0	0	1	0	0	0	1	0	1
		0.0%	0.0%	25.0%	0.0%	0.0%	4.2%	0.0%	0.0%	0.0%	11.1%	0.0%	4.2%
전체		9	1	4	6	4	24	2	2	6	9	5	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6.978 p = 0.860						Fisher = 7.610 p = 0.660					

5) 가장관련 연수시간

이수했던 가장관련 강의나 연수시간과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6>과 같다. 분석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p>.05$).

<표 26> 가창관련 연수시간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초과	전체
연수 시간	15시간	4	0	2	2	2	10	1	1	2	5	1	10
		44.4%	0.0%	50.0%	33.3%	50.0%	41.7%	50.0%	50.0%	33.3%	55.6%	20.0%	41.7%
	30시간	5	1	2	3	2	13	1	1	3	4	4	13
		55.6%	100.0%	50.0%	50.0%	50.0%	54.2%	50.0%	50.0%	50.0%	44.4%	80.0%	54.2%
	60시간	0	0	0	1	0	1	0	0	1	0	0	1
		0.0%	0.0%	0.0%	16.7%	0.0%	4.2%	0.0%	0.0%	16.7%	0.0%	0.0%	4.2%
	전체	9	1	4	6	4	24	2	2	6	9	5	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6.024 p = 0.952						Fisher = 6.754 p = 0.849					

6) 연수 효과

이수했던 가창관련 강의 및 연수 효과와 경력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7>과 같다. 분석결과 차이가 미미했다(p>.05).

<표 27> 연수 효과

조사 내용		경력 구분											
		음악전담교사						교직					
		1년	2년	3년	3~5년	5~10년	전체	5년이하	5~10년	10~20년	20~30년	30년초과	전체
연수 효과	매우 도움	1	1	1	3	3	9	0	0	3	3	3	9
		11.1%	100.0%	25.0%	50.0%	75.0%	37.5%	0.0%	0.0%	50.0%	33.3%	60.0%	37.5%
	조금 도움	7	0	2	3	0	12	1	2	2	6	1	12
		77.8%	0.0%	50.0%	50.0%	0.0%	50.0%	50.0%	100.0%	33.3%	66.7%	20.0%	50.0%
	보통	1	0	1	0	1	3	1	0	1	0	1	3
		11.1%	0.0%	25.0%	0.0%	25.0%	12.5%	50.0%	0.0%	16.7%	0.0%	20.0%	12.5%
	전체	9	1	4	6	4	24	2	2	6	9	5	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력별 X^2		Fisher = 11.264 p = 0.92						Fisher = 8.677 p = 0.307					

IV. 논의 중점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을 정리한다면,

첫째, 강원도권의 초등 음악전담교사들의 교직경력과 음악전담경력을 조사해 본 결과 교직경력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교사들이 67%를 차지하였으며, 음악전담교사경력이 전체 교직경력 중에서 1년 정도에 해당하는 교사가 39%였다. 교육대학교 졸업자가 55%이고 음악교육 비관련 석사학위 이수자가 31%이고 음악교육관련 석사학위자는 13%로 나타났다. 음악전담교사 직무수행 경위는 학교장의 임명이 48%였지만³⁾, 본인이 희망한 응답자도 37%나 되었다. 우려할만한 점은 음악교육 관련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채 단기간(1년 남짓) 음악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음악전담교사들의 가창교육 및 가창지도 자체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교사들은 다양한 노래곡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미적 경험을 강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나 가창활동을 통한 음악적 지식의 균형 잡힌 습득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예컨대 가창지도에서 선호하는 노래곡은 창작동요(51%), 우리 민요(4%), 세계 민요(3%) 등의 순으로 기울어 있다. 또 반주는 인터넷사이트의 음원 활용(1순위), 피아노와 기타 등 악기의 활용(2순위)을 들었는데, 후자의 경우는 전체의 34%에 해당한다. 지도 방식에도 음원을 듣고 따라 부르기가 과반수를 넘겼고, 교사가 부르고 학생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이 그 다음 순위로 파악되었다.

물론 바람직하게도 교사들은 무엇이 좋은 가창지도 및 음악수업인지 자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창수업에서 신체표현 활동을 병행하거나 악곡의 리듬 및 음정의 정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창수업에 코다이교수법이 유용하고 가창활동과 기악활동을 연계하며, 학생의 개별적 수준을 고려하여 모듈구성의 형태로 진행하고, 평가내용으로 음정과 박자의 정확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교사들의 실제 가창지도 및 수업을 살필 때, 이론적 지식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였다. 우선적으로 또 응답자의 대다수(67%)가 가창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가창지도 실력은 중간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교사들은 (자체 평가로도) 가창 제재곡 중 특정 장르만을 선호하며, 노래

3) 우리나라의 현행 음악전담교사는 학교장의 인사권한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음악전담교사로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이수 혹은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로서의 검증과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간혹 ‘뺨질식’ 배치 내지 임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주를 직접 해주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노래부르기 수업의 내용과 평가를 악곡의 리듬과 음정 중심으로 환원시켜 진행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가창수업에 악곡의 정확한 리듬과 음정을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불러볼 기회를 주어 그들 스스로 가창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과 즐거움을 체험하도록 교사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교과 이외에 가창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동아리 형태로 시행하고 있고, 가창활동의 시수확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시수가 확대되어야 하더라도 주당 1시간으로 제한하는 의견(68%)을 보였다. 교사들이 가창지도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그럼에도 다른 한편 대다수의 교사들은 가창관련 교사재교육의 필요성에는 수긍하고 있다. 예컨대 ‘가창 지도능력의 향상을 위해서’(88%) 말이다. 그렇다면 가창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무지가 아니라 지도능력의 결여 및 부족이 주된 문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재교육에서 그 연수내용으로 가창관련 교수·학습 지도법이 우선적으로 중시되었는데, 가창 반주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연수기간으로는 1주일 30시간과 15시간의 순으로 적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창관련 연수 등을 이수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교사가 63%에 해당하고,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1~2회 정도라고 응답한 교사가 68%에 해당한다. 최근 3년~10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직무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합창지도와 교과서 제재곡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수받은 곳으로 교육대학교 장소를 이용하고, 30시간의 연수를 이수하였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창관련 연수이수 후 (매우 혹은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수가 87.5%에 해당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들의 가창지도에 대한 인식 및 수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교사들의 가창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강원도권의 초등 음악전담교사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했다. 강원도권의 초등 음악전담교사들의 교직경력 및 음악전담경력에 따른 가창 지도능력과 가창수업에 대한 인식, 정규교과 이외의 가창관

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 가창관련 교사재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조사도구는 3개의 범주 및 2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분석결과로서 첫째, 강원도권의 초등 음악전담교사들의 교직경력과 음악전담경력을 비교해보았을 때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학교장의 임명으로 음악전담교사를 1년 남짓 담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교육대학교의 교과전담 전공분야의 교육과정 이수와 전공분야 교사재교육의 연수 제공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으로 음악전담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둘째, 가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호불호에 따른 장르의 노래곡을 넘어서 균형 잡힌 가창지도 및 수업을 위해 교사의 선도적인 교육능력 및 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교사 스스로 가창 및 선곡에 어려움을 갖지 않고, 직접 악기로 반주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당연히 학생들이 가창수업 중에 익혀야 할 수업내용(미적 체험, 악곡의 리듬 및 음정 익히기 등)은 물론 활용되는 다양한 수업방식(신체표현, 악기 활용)과도 직결된다.

셋째,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요인을 살폈을 때 교사들은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교과 이외 가창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저조하다. 일부 동아리 형태로 가창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노래를 통하여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에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넷째, 가창관련 연수 및 교사재교육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가창지도능력의 향상을 위해 관심이 많으며, 특히 가창관련 교수·학습 지도법에 대해 배우기를 희망한다. 가창 반주법에 대한 교사들의 소극적인 것은 낮은 나이에 새로이 악기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 만큼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재교육 프로그램과 지원방법 요인을 살핀 결과, 가창관련 연수 등을 이수한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연수 참여 경험횟수도 1~2회 정도인 교사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우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손쉬운 참여를 위해 재교육 및 연수 분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현상은 비단 강원도권의 초등 음악교육 및 음악전담교사들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수준 높은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음악적 가치와 미적 경험은 분명 의미심장하다. 본 연구가 미진하게나마 제시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가창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는 물론 그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지금보다는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고선미 (2001). 변성기의 생리학적 분석과 이에 따른 가창 지도방안 연구. **이화음악논집** 5, 5-34.
- 김효정, 전병식 (2007).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제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주제발표 - 외국 교과 전담 교사제의 현황과 시사점(토론).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3호, 49-66.
- 류민혜 (2009). 교실 합창 지도에서 노래 가사 읽기 활용 방안. **예술교육연구** 7(2), 89-104.
- 문경숙 (2009). 초등학교 음악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탐색. **이화음악논집** 13(1), 91-133.
- 석선훈 (2005).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음악전문적 자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종모 외 (2001).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양적 접근[자료집-1] (ORM 2001-31).
- 이한화 (2006).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대처방안.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경 (2003). 교과교육 전담교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131-146.
- 조순이 (2007). 노랫말 발음을 활용한 가창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4학년 음악 '방울꽃'을 사례로. **음악교육연구** 33, 235-261.
- 최민경 (2005). 음악교과전담제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도 조사 - 울산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식, 신혜경 (2012). 개별화 음악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및 요구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권 2호, 357-387.
- 함희주 (1994). 가창 학습 지도를 위한 내용 및 방법, **음악과 민족** 8권 0호, 275-300.

ABSTRACT

A Study on Elementary Specialized Music Teacher's Perception about Teaching of Singing

Suni Cho

This study investigated with a questionnaire the recognition of their teaching strategies of singing of 67 specialized music teachers who work in elementary schools in Gangwon-Do. The recognition involves in their teaching of singing. The questionnaire asked their experiences for the teaching of singing, their participations in study and training-programs, their self-consciousness of teaching, their teaching-methods, and their actual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of the present curriculum. The result can be summed up as follow: They aimed with the teaching of singing to an aesthetic inspiration of children with various songs, preferred to teach created children songs, and their accompaniments are conducted mainly with internet-site, by which children sing along the listened from sound source. They think that the accuracy of the rhythm and interval is very important as the content and evaluation of the teaching of singing, which may be operated not in curriculum but in activities of the youth circles. The majority of teachers in this poll hope for participation in several training-programs for the better teaching, and they feel lack of multifarious study and training-programs and essential developing of the present curriculum.

Key words: teaching of singing, singing and training program, specialized music teacher, self-consciousness of teachers, questionnaire of teaching

투고일: 2016년 2월 29일, 심사(수정): 4월 19일(4월 21일), 게재확정일: 4월 21일